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참관기

강영숙 마리아막달레나 |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사무국 과장

2011년 11월 22일,

밤 11:50, 비가 내리고 있다. 지금은 이륙 중이다. 밤 비행기라 좌석은 여유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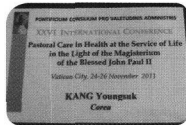
얼만큼 잤을까. 창문으로 보이는 밖은 여전히 깜깜하다. 비행기는 밤을 향해 날고 있었다.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 이탈리아 로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 총 18시간 걸려 도착했다.(로마시간 10:00)

호텔에 도착하니 11:45(한국과의 시차는 8시간).

공항에서 약속하고 타고 온 VAN은 자연스럽게 10분을 올려 받는다. 한참을 실랑이 했다. 로마에서는 소매치기를 조심하라 했으며, 택시의 횡포가 크고 너무 비싸니 타지 말라는 말이 실감나는 상황이다.

호텔 프론트에서는 우리가 예약하고 온 날짜가 틀려 또 옥신각신하였다. 겨우 여장을 풀고 대회 사무국을 찾아가 참가비를 내고 대회 출입증(명찰, Badage)을 받았다.



11월 24일,

07:30,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의 개막미사를 위해 밤이 날 정도로 바쁘게 걸었다. 벌써 주교님들의 입장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을 만큼 들떠 있었다. 어마어마한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물에 압도되었고, 50여분의 세계 각 나라 주교님들의 입장을 보며 감격스러워 했고, 대회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수도·성직자들이었으며 평신도들은 많지 않았다. 개막미사가 끝나고 뉴 시노드 홀로 자리를 이동하였다. 전 세계 40개국에서 600명 정도가 이 대회를 참가했다. 지그문트 지모포스키 보건사목평의회 의장의 전체 진행 아래 '복자 요한 바오로 2세의 교도권에 비추어 본 생명에 봉사하는 보건사목'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소주제들을 대회 공식용어인

이탈리아어로 들을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각자 필요한 언어(1.이탈리아어, 2 프랑스어, 3. 스페인어, 4. 영어)를 선택하여 한쪽 귀로 동시통역하여 들을 수 있었으나 강의 자료를 미리 주지 않았고, 공식 언어인 이탈리아어가 너무 크고 동시통역어가 작고 매끄럽지 않아 다 이해하기는 불가능하였다. 진행하시는 교황청(the Holy See)의 많은 연로하신 추기경, 몬시뇰 이하, 신부님들께서는 시간의 흐름에도 자세하나 흐트러짐 없이 깨끗하시다.

11월 25일, 바티칸시티 뉴 시노드 홀

많은 분들이 동시통역기를 귀에 꽂고 있었다. 매일의 일정이 너무 빡빡한 관계로 다음날 첫 시간은 전날 못한 프로그램으로 하루가 시작된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대회장의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겁다. '복자 요한 바오로 2세'에 관련된 내용이라 그런 것 같다. 설 틈 없이 진행되는 대회일정은 over time을 하기 일쑤다. 화장실을 다니기도 쉽지 않다.

저녁 6:00에 뉴 시노드 홀 1층에서 우리를 위한 concert가 개최되었다. 온갖 아름다운 음률과 환상의 악기들로 최상의 대접을 받았다. 국무총리 대주교님과 아주 많은 주교님들, 성직 수도자들... 황홀한 분위기다. 천상의 소리 같다. 나는 어제 개막미사에서 벨기에 윤루카 대주교님을 만나 같이 대회를 참석하는 영광도 함께 누렸다.

행사 마지막 날인 토요일(11월 26일)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알현이 있었다. 황홀한 순간의 연속이다.

이 모든 순간들을 영원히 기억하며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